

■ 건물 및 소방설비 개황

R&D센터, 비즈니스동, MCR동, EMC동 등 총 11개로 이루어진 제일모직 의왕사업장은 지난 2007년 921억 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한 상태이다. 사업장 내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6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상 13층 지하 3층 규모의 R&D센터는 연구, 실험시설 외에도 정보자료실, 경영회의실, 기술창조관, 세미나실 등 최신식 시설을 자랑한다. R&D센터 지하에 위치한 통합방재센터는 사업장내 모든 소방대상물을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를 위해 공장 전역에 Notifier사의 R형 통합수신기와 아날로그 감지기가 설치되었고, R&D센터, 비즈니스동, 가공조색동 EMC제품창고와 주차동에는 자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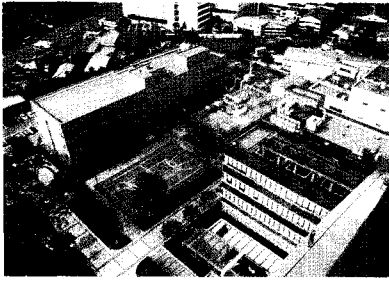
소방펌프는 R&D센터용으로 100마력의 주펌프 2대와 175마력의 예비펌프 1대가 설치되었고, 그 외의 건물 용도로 150마력의 주펌프 2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소화용수는 1차수원에 총 63톤이, 2차수원에 25톤이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로는 R&D센터에 FM-200(청정소화약제) 소화가스 2.4톤과 MCR동에 하론소화가스 4.5톤이 설치되어 있다.

제 일 모 직 (주) 의 왕 사 업 장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열정으로

이번 탐방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 위치한 제일모직(주) 의왕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을 갖춘 의왕사업장 외에도 여수, 구미에 대규모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제일모직은 매출의 75% 정도가 케미컬, 전자재료 부문일 정도로 신소재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다. 의류 패션부문도 연간 매출이 1조원 규모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의왕사업장을 방문한 첫 느낌은 공장이라기보다는 도심 속의 주상복합건물에 온 듯하다. 현대식의 우뚝 선 고층건물, 작은 연못과 주변의 잘 가꾸어진 산책로, 농구코트 등 왠지 공장이라는 이름이 낯설다.





■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 인력이 4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40%에 이르는 의왕사업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련 부서의 활동내용 또한 기타 사업장과는 사뭇 다르다. 연구원들은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요구나 지시보다는 안전 활동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킨 후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상적인 안전점검에 실험실 담당자를 참여시켜 스스로 문제점을 돌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임원들도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에 동참할 계획이다. 안전담당부서 내부의 활동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소방안전에 완벽이란 없다는 생각에 지금은 1D1P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1D1P란 1Day 1Photo의 약자로 매일 하루 1건 이상의 문제점을 사진으로 촬영해 문제와 해결방안을 공유하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 정기적인 교차점검과 안전교육 생활화

점검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과 소방안전 분야에 대해 정기적인 교차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매년 봄과 가을에 실시하는데, 지적내용이 충실할 뿐 아니라 상호 교육 및 정보공유 효과도 뛰어나다는 자랑이다.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금은 사업장별로 매월 발간하던 '환경안전회보'도 통합하여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교육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환경안전회보'는 관련 법규의 변경과 업무동향 및 추이, 사고사례 등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내 전문 시설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상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상황훈련이란 가스누설, 정전, 화

재, 누수와 승강기에 간헐적 등 5가지 상황에 대해 야간에 불시에 상황을 발동하고 대응상태를 체크하는 훈련이다. 상황은 비록 5가지로 제한되나 발동은 불시에 이루어져 반복에 따른 훈련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방재 실무교육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각종 수상은 경영진의 높은 관심과 지원 덕분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자량이 이어진다. 지난 2004년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을, 2008년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OHSHA 18001을 획득하였다. 임원이 참여하는 일상점검도 경영진의 제안으로 계획되었다. 올 4월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한전, 수도사업소, 가스안전공사, 군부대, 병원, 의용소방대원을 망라하는 유관기관 합동 긴급통제단 훈련도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각 실험실 별 위험유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유형별 비상대응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덕분에 2008년 2월엔 방화관리능력 우수대상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하였고, 그 해 11월엔 '소방의 날'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 12월엔 무재해 20배수도 달성 예정이라 한다. 이 모든 것이 경영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란 설명이다.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최상의 품질과 가치창출을 위해 뛰고 있는 제일모직이, 성공적인 사업개편과 기술시장 리더를 통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